
생명, 진화 그리고 초월의 존재론 :

김보영 초기 단편집을 중심으로*

오윤호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서론
- II. 반복발생설의 진화와 적응으로서의 감각 : 「촉각의 경험」,
「다섯 번째 감각」, 「우수한 유전자」
- III. 포스트 휴먼의 기술적 진화와 종적 경쟁 : 「종의 기원」
- IV. 초월적 진화의 판타지와 생명의 근원 : 「진화신화」, 「몽중몽」
- V. 결론

국문초록

SF는 오랫동안 인류의 진화라는 주제에 매료되어 왔으며, 과학기술이 생명체의 진화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상상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김보영 초기 단편집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진화부터 기계적 진화, 신화적 진화까지 다양한 진화론적 상상력을 다루며, 생명과 진화, 인간과 기계, 동물의 정체성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독특한 사변소설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2장에서는 에른스트 헤켈의 반복발생설을 바탕으로 개체적 존재의 진화와 퇴화가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로봇생물학의 시각에서 로봇 종과 인간 종의 경쟁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개체적 생명 안에서 종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초월적 진화로 나아가는 존재론과 생명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김보영, 생명, 진화, 사변소설, 반복발생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9796)

1. 서론

김보영은 「촉각의 경험」으로 2004년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에 중편 부문에서 수상을 하며 SF작가로 데뷔하게 된다. 이 시기 같이 등단한 SF작가가 「레디메이드 보살」을 쓴 박성환이고, 그 다음해에 「SmartD」를 쓴 배명훈이라는 점에서 김보영은 90년대 PC통신 시대와 닷컴버블을 경험하며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21세기 한국 SF의 기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보영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한국 SF의 특성을 밝히는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한국 SF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로, 우미영은 다코 수빈의 ‘낮섬’ 개념을 가지고 김보영의 「촉각의 경험」, 「다섯 번째 감각」, 「종의 기원」, 「종의 기원: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SF의 기본 시학에 충실한 예”¹⁾라고 평가하였다. 최수진·방재석은 사고실험과 ‘낮설게 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저 이승의 선지자」가 관념적인 4차원 세계의 불멸하는 주체를 통해 생태적 재난 상황에서 인간 조건을 사유한다고 평가한다.²⁾ 다만 ‘낮설게 하기’란 대부분의 언어예술이 가지고 있는 미적 재현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SF만의 특징, 혹은 김보영 소설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김보영이 2010년대 한국 SF를 선도하는 여성 작가라는 점은 그녀의 작품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이유다. 허윤은 김보영의 소설이 “인간과 비인간, 장애와 비장애, 여성과 남성 등 이원화된 세계의 규칙을 전유함으로써 근대성이 규율한 ‘일하는 몸’ 이후의 세계를 탐구한다”³⁾고 보면서 “그야말로 페미니스트 SF”⁴⁾라고 선언한다. 강은교·

1)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 · 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29쪽.

2) 최수진, 방재석, 「재난을 다루는 SF소설의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서사 연구 : 이경희 「그날, 그곳에서」와 김보영의 「저 이승의 선지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2집,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1, 278쪽.

3)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김은주는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조우에 주목하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를 분석하며, 이 소설이 “지금-여기의 젠더 관계를 낫설게 하기”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⁵⁾ 서승희는 포스트휴먼 논의를 중심으로 김보영 소설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 SF’의 가능성을 보려고 한다.⁶⁾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김보영의 SF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아우르고 포스트휴먼적 조건에 대한 논의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21세기 한국 SF의 출발점이기도 한 김보영의 초기 단편 소설⁷⁾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며, 특히 작가론적인 시각에서 김보영 작가가 작품활동 초기부터 관심을 갖는 진화론적인 상상력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김보영 소설의 진화론적인 상상력은 초기 단편집을 중심으로 생명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진화에 대한 전도적 상상력으로 잘 나타나 있다. 「촉각의 경험」, 「다섯 번째 감각」, 「우월한 유전자」는 진화론적 지식과 유전자 조작 기술이 불러오는 개체적 생명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종의 기원」과 「종의 기원: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멸종한 수십 만년 후 지구에서 새롭게 진화하며 살아가는 기계 문명을 배경으로 유기생물학을 연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며 포스트 휴먼과 유기생명체로서의 인간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고, 「진화신화」에서는 개체 존재 안에서 종적 변신이 전개되는 신화적 진화의 판타지를 재현하고 있다. 김보영은 전통적인 생물진화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연선택이나 적응의 문제를 위에서 언급한 작품 속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진화론적인 상상력을 통해 인간

『여성문학연구』52호, 한국여성문학회, 2021, 14쪽.

4) 위의 글, 33쪽.

5) 강은교, 김은주, 「한국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9호, 한국여성문학회, 2020.

6)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제7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7) 김보영, 『멀리가는 이야기 - 김보영 중단편선1』, 행복한책읽기, 2010. 김보영, 『진화신화 - 김보영 중단편선2』, 행복한책읽기, 2010.

존재 및 개체적 생명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확장하며 김보영 특유의 SF 존재론을 펼쳐놓게 된다.

SF는 오랫동안 인류의 진화라는 주제에 매료되어 왔다. 서구 근대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로봇과 AI를 다루는 SF가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는 중요한 경향이 되기도 하지만 진화한 혹은 퇴보한 인류의 미래를 탐구하며 시간여행이나 생물학적인 변화에 주목한 SF 역시 매우 중요한 SF의 메가텍스트로 자리잡게 된다. 대부분의 SF 연구자들이 현대 SF 소설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1818)의 경우도 생명 창조와 상상력과 인간 종과 괴물 종의 경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 이전에 이미 진화론적인 상상력이 소설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근대 진화생물학이 성립하고 중요한 과학의 한 분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SF는 생물진화를 다양하게 허구화했다. 세릴 빈트는 생물학적 변화(biological change)를 소재로 한 SF가 “다윈주의 사상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전의 이해를 혼란스럽게”⁸⁾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SF는 생물학적인 진화 개념과 이론을 허구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계를 확장하게 되는데, 실제 생물학에서 복잡하고 점진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진화⁹⁾는 SF 속에서는 진화가 가속화하는 양상으로 제시된다거나 아예 진화가 멈춰버리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SF 속에서 재현된 진화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가 아닌 현재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시간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작품인 H. G. 웰스의 『타임머신』(1895)에서 서기 802,701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과학자가 인간의 진화한 후손으로 보이는 엘로이 족과 몰록 족¹⁰⁾을 만나

8) Vint, S. (2014). *Science Fiction: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Bloomsbury Academic, p.97.

9) 생물학적 진화는 서로 다른 생물종이 경쟁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화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우연적인 변이로부터 시작되어,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쳐 생물체의 특성이 세대 간의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이것이 종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

10) 엘로이는 약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종족이다. 반면 몰록

게 되는데, 이 두 종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 계급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인류가 먼 미래에 퇴화한 생물종으로 그려진 것이다. 『타임머신』은 단순한 시간여행을 위한 기계장치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이면서도 사회문화적인 퇴화를 극적 사건으로 설정한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계급적 갈등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문화적 적응의 문제를 미래로 이어지는 진화(혹은 퇴화) 과정으로 형상화하며 인류의 진화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드러낸다. 이 사고 실험 과정에서 수십 억 년에 걸친 두 미래 인간 종의 진화를 추적하고 현재 인류의 유한성과 계급적 갈등을 드러내며, 서구 근대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근대적 합리성에 도전하는 전복적 상상력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상만 놓고 본다면, 진화를 소재로 한 『타임머신』은 “과학적 사실과 예언적 통찰”을 주장했던 휴고 건즈백의 SF 정의에 가장 적합한 작품인 것이다.¹¹⁾

인간의 진화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기계나 로봇, AI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더 나은 지적인 존재로 진화하는 상상력은 SF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다.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물학적 진화와 기술적 진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며, 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 및 갈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존재론적인 의미와 윤리적 가치 등을 다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이다. 이 작품에서 안드로이드는 인간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과 연민을 가지게 된다. 즉 기술적 진화를 통해 인간다운 지적 존재가 되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통해 인간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다. 반면 인간인 데커드는 안드로이드를 사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 그 사이에 놓인 차별적 인식과 그들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모호성 속에서 깊

은 지하에서 살며 무서운 외모를 가진 짐승 같은 종족으로 엘로이를 사냥해서 먹으며 생존한다.

11) 세릴 빈트, 마크 볼드, 송경아 옮김, 『SF연대기』, 허블, 2021, 31쪽.

이 고뇌한다.

진화를 재현하는 SF는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생명체의 진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진화를 통제하는 방식을 점점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생물 종과 기계 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게 된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은 인류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타임머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연선택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미래 사회의 기술적 적응을 그리고 있다. 『멋진 신세계』는 포드력 632년(서기 2540년)을 배경으로 자연선택과 경쟁이 사라져 버리고, 인공적인 유전자 조작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계급에 맞게 인간이 태어나고 물리적·정신적 특성이 조절되는 미래 사회를 재현한다. 사회 안정을 위해 유전자 통제¹²⁾ 상태에 놓인 인간들은 소마라는 약물에 의해 개별적 정서와 욕구를 억압당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감정과 이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소설은 종종 과학 기술 문명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표현하며, 과학기술이 진화 과정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윤리적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며, 생물학적으로 진화할 수도 없고 문화적으로 진보할 수도 없는 미래가 그려진다. SF는 잠재적인 미래 기술을 검토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진화의 결과를 상상함으로써 인류의 행동과 선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한다. 『멋진 신세계』에서 진화가 뒤엎어버린 디스토피아 미래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기술 상업주의, 환경 파괴, 무모한 과학 실험을 비판하는 패러디 효과도 갖고 있다. 따라서 독자와 비평가는 SF의 예술적 표현과 실제 생물진화론의 과학적 원리를 구별하면서도, 진화가 멈춰버린 인류의 미래가 진정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12) 『멋진 신세계』에서 미래의 인류는 '보카노프스키 법'으로 난자를 처리하여 하나의 난소에서 96명의 아이가 자라나게 하는, "일련의 성장억제조치 방법"으로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을 만들어 사회 안정을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 활동과 진화 과정이 철저히 통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진화를 재현하는 SF의 이러한 경향에 기대어, 본고는 김보영 초기 단편집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진화로부터 기계적 진화, 신화적 진화까지 펼쳐져 있는 진화론적 상상력의 스펙트럼을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진화를 사유하고, 인간과 기계 혹은 동물이 가진 ‘생명’의 근원적 정체성을 사유하는 김보영 특유의 사변소설적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그러면서 진화론적인 상상력을 재현하는 김보영 초기 단편 소설이 인류 진화를 재현하는 SF 장르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고 한다.

II. 반복발생설의 진화와 적응으로서의 감각 : 「촉각의 경험」, 「다섯 번째 감각」, 「우수한 유전자」

김보영 작가의 진화에 대한 관심은 데뷔작인 「촉각의 경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촉각의 경험」에서 사장 유시현은 뇌파공명기 구입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 장치를 이용하여 태어난 이후 어떤 사회적 경험도 겪어보지 못한 자신의 클론이 꾸는 꿈을 경험하고 싶다고 연구소 소장에게 말한다. 그 꿈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멀리 가는 이야기』, 14쪽), “세계와 접촉하지 못한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 다발에 들어 있는 몇 십억 년에 걸친 생물의 진화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시현의 욕망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오래되고 이제는 폐기된 반복발생설을 철저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866년에 에른스트 헤켈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라는 학설을 선언하는데, 이 이론은 하나의 개체 생명체가 발생하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이전 종의 진화 단계가 누적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에른스트 헤켈의 주장은 20세기 교과서에서 정론으로 게재되기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식을 상식처럼 받아들일 정도였으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폐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생물학의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김보영의 「촉각의 경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진화신화」에서도 개체 생명체 안에서 계통발생이 발생하는 현상을 ‘신화’적으로 그리고 있다.¹³⁾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반복발생설이 김보영 작가의 SF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촉각의 경험」에서 유시현의 실험은 실패하게 되는데, 유시현과 클론 사이에 역전이가 일어나면서 유시현의 의식과 꿈이 클론에게 전달되고, 클론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의식하며 격렬한 고통 속에 죽어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 ‘촉각’을 참여화하여 인큐베이터 안을 경험하려고 하는 클론의 적응 능력이다. 김보영 소설 속에서 적응은 종적 적응뿐만 아니라, 개체적 적응의 상황이 보다 극적으로 제시되곤 한다. 「촉각의 경험」에서 외부환경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 ‘촉각’으로 강조된다면, 「다섯 번째 감각」에서는 이미 퇴화된 것으로 묘사되는 청각이, 「진화신화」에서는 개체 내 종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변화하는 양상을 경험할 때에 촉각과 시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때의 적응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든 적응한다.”라는 필연적 과정에 더 가깝다. 진화의 과정과 그에 따르는 우연적 결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결국 모든 존재는 진화한다는 절대적 상황을 설정하고 진화하는 존재가 마주하게 되는 극적 상황에 김보영은 주목한다.

「다섯 번째 감각」에서는 「촉각의 경험」에서 강조된 인간의 감각이 진화 과정을 통해 퇴화된 상황이 그려진다.

“아주 먼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청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중략>
오랜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신화, 아마 물의 수위가
높아져 해안 도시가 대부분 물에 잠겨버린 그 전쟁 때, 인간의 유전자

13) “계통이란 근원을 따지고 들면 그 경계가 없는 것이요. 그대도 자신의 형질이 흙과 물 양쪽에 발을 걸치고 서 있음을 인정한다면, 물에 사는 생물들이 한때는 모두 물에서 살았음을 기억해 주시오. 만물이 한 기원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 주시오. 돌고래와 바다사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진화를 역행하려 한다 해도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닐 것이요.”(『진화신화』, 25쪽)

에 어떤 변형이 와서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죠.”(『멀리 가는 이야기』, 155쪽)

일반 사람들에게 자매는 종교집단의 일원이며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오래 전에 퇴화해버린 청각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화와 퇴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돌연변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마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소리를 만들고 그것을 들으며 기뻐한다. 퇴화하지 않은 청각은 두 자매를 신비화한다.

「다섯 번째 감각」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진화론적인 인간 삶과 오랫동안 생명체의 유전자에 남아있던 특정 본성(청각)이 우리 시대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적응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과 진화한 개체들과 그렇지 못한 개체들 사이의 갈등을 개체 생명 간의 갈등으로 풀어낸다는 점에 있다. 진화론의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의 문제는 김보영의 초기 SF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이다.

소설 속에는 모든 것이 문명화된 스카이돔과 “조만간 퇴화로 인해 멸종”할지도 모르는 키바가 등장한다. 스카이돔의 쾌적한 환경에 비하면, 키바는 덥고 습하며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농야까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유전자 판별기”인데, 유전자 판별기가 산부인과에 보급되었을 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류 계층의 20~30대 자녀들 뿐이었고 십수 년이 지나자 유전자 판별기로 태어난 사람들의 사회(스카이돔)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키바)가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설정은 웰스의 『타임머신』에 등장하는 엘로이 족과 몰록 족을 떠올리게 한다. 현 사회의 계급적 차이가 미래의 차별화된 종적 진화를 만들어냈다는 서사적 설정은 이후 진화론을 소재로 한 SF의 클리셰가 되었다.

「우수한 유전자」는 “자연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자.”는 키바 사람들과 그러한 삶이 “인간 진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퇴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훈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지훈은 스카이돔의 키바 복지회 소속 직원으로 키바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복지를 누리기를 요청하기 위해 키바 24-A 지구를 방문한다. 키바 복지회는 스카이돔과 키바 사이의 문명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전자 판별기를 키바인들이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계몽” 활동을 하고 있다. 키바인들은 유전자 판별기가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진화의 속도에 관여하는 것”(178쪽)이라고 생각하고, 지훈은 키바인들에게 이 기계가 단순한 문명의 도구¹⁴⁾라고 설명하지만 키바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령 청각 장애아의 경우, 키바인들에게 청각 장애아 자체도 진화의 산물이며, 자연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잉여적 삶의 일부이다. 그 자체로도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라는 점을 키바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훈은 유전자판별기로 이룬 문명을 옹호하며, 키바인들의 삶을 퇴화라고 규정한다.¹⁵⁾ 지훈은 “성홍열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주문을 외우며 치료하는 키바 사람들을 보면서 “인류는 뒤로 역행했다. 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인류의 위대한 역사도, 문화도 지식도 깡그리 잊어버리고.”(183~184쪽)라고 말하며 절망한다.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아마 우리는 이미 아중으로 분화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이라는 이름의 같은 생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종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라고 말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전자 판독기는 인간을 이중적으로 진화시켰다.

그러나 지훈은 한참이 지난 후, 키바인과 싸웠던 자신을 회상하며 스카이돔을 비판하고, 키바인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된다. 「우수한

14) “돌을 깎고 동굴을 파던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며 살아왔어요. 인류가 진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뿐입니다.”(『멀리 가는 이야기』, 179쪽)

15) “인간의 진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훈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미개한 생활을 계속할 것입니까! 인류가 태양계로 진출하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동안, 당신들은 이 지푸라기로 만든 움막에 들어앉아서 바구니나 뜨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있다고요! 가난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스카이돔에 착취당하며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멀리 가는 이야기』, 181쪽)

유전자」는 지훈이 키바를 방문한 내용(속이야기)과 그것을 다시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겉이야기) 메타픽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훈으로 하여금 스카이돔과 키바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인식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유전자 판별기를 만든 사람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었고, 의심없이 자신들을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가치기준에 의해 우성과 열성을 분류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인종적 편견과 시대적 편견이 모두 녹아 있는 (물론 그들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믿었지만)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신인류가 될 아이들의 유전자를 집요하게 제거했으며, 자신들의 기준에서 우수한 유전자만을 보존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에 의거해서도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인간을 자신의 선천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는 너무 작았고, 세대의 교체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너무나 확고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가는 이야기』, 185~186쪽)

지훈은 키바인들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과 태도를 경멸했었지만, 스카이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적 성향을 비판적으로 거론하며 그들이 말하는 우수한 유전자가 새로운 진화의 길을 막고 인간의 진화를 “오랫동안 고립”시켜왔다고 깨닫게 된다.

「축각의 경험」, 「다섯 번째 감각」, 「우수한 유전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진화론적인 인간 삶과 오랫동안 생명체의 유전자에 남아있던 특정 본성이 우리 시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적응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과 진화한 개체들과 그렇지 못한 개체들 사이의 갈등을 개체 생명 간의 갈등으로 풀어낸다는 점에 있다. 진화론의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의 문제는 김보영의 초기 SF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것이다.

III. 포스트 휴먼의 기술적 진화와 종적 경쟁 : 「종의 기원」

김보영의 「종의 기원」은 제목부터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오마주이면서 로봇이 진화하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생물학적 진화와 기술적 진화를 겹쳐 놓고 보면서, 지구 위에 진화하는 존재가 꼭 유기 생물일 필요는 없으며, 지적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형상화한다.

「종의 기원」의 배경은 인류가 멸종한 수십 만년 이후 환경 오염으로 인해 로봇과 기계들이 스스로 살아 있는 존재로 진화하는 시대이다. 햇볕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구 환경은 인간들에게는 기후 재앙에 해당하지만, 로봇들에게는 그들만의 생명을 유지하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소설은 “지적 존재인 로봇이 진화하며 자신들이 경험하는 물질적 토대에 기반한 지적 체계와 문명을 구축해가는 일련의 역사 기록 과정을 로봇의 진화론적 시각에서 재구성한다.”¹⁶⁾ 로봇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문명을 유지하고, 고장난 로봇을 분해해서 부품이 필요한 로봇에게 장착하거나 이 부품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로봇을 만들면서 진화한다. 이러한 모습은 유기생명체가 보여주는 진화의 과정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지구 환경의 기원과 로봇 생물학의 의미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생물학적 시각을 잘 보여준다.

「종의 기원」에서는 로봇의 기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기생물학이 과학인지 철학인지의 논쟁이 벌어지며, 유기생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기물질의 생육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기물질이 인정받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험에 의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진은 실험을 거듭하면서 실패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는 로봇 시대와 유기물질 시대의 자연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소”가 유기물질의 생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케이의 이러한 발견은 로봇 문명의 지적 발견이면서도 로봇의 기원에 대한 흥미

16) 오윤호, 「21세기 생태 위기와 기술적 적응」, 『영주어문』52권, 영주어문학회, 2022, 216쪽.

로운 비밀이 밝혀지는 계기를 만들어 내게 된다.¹⁷⁾

「종의 기원 :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제목만 보자면, 「종의 기원」 후속작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본편에 해당한다. 「종의 기원」이 인간을 비롯한 유기생물이 멸종한 후 로봇만이 살아남아 진화하는 시대라는 독특한 시공간을 구성하고 유기생명체를 발명하는 로봇이라는 설정을 만드는 프롤로그에 해당한다면, 「종의 기원 :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지구 위에서 진화하는 지적 존재가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나의 극적 사건, 인간과 로봇, 유기생명체와 무기생명체 사이에 놓인 종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재현한다.

「종의 기원」에서 유기생물학을 창시하는데 결정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로봇인 케이는 ‘공장’(유기생물 연구소)을 떠나서 고생물학자가 되어 “로봇의 진화 역사를 알려 주는 귀중한 화석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를 찾아온 베로니카는 자신의 남편이 ‘공장’을 둘러싼 기업 자금 문제를 취재한 이후에 ‘공장’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케이에게 부탁한다. 케이이 다시 방문한 연구소는 왕성하게 성장한 유기생물로 가득했다. 로봇에게는 치명적일 정도로 더운 건물 안은 유기생물의 배양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케이이 창조해 내려고 했던 유기생물 ‘인간’이 길러지고 있었다.

“그건 케이이 마지막으로 하던 연구였다. 연구소에서 나오기 몇 년 전부터 그는 2000모델을 기반으로 로봇을 닮은 유기생물을 창조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다. 세실이 그들을 <인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케이이 이론 단계까지 완성해 놓고 떠난 것이었다. 실험은 성공했다. 단백질이 로봇의 모양을 흉내 내어 자라났다. 꾸준히, 느릿느릿, 공기를 마시고 다른 유기생물을 뜯어먹으며, 주위로부터 흡수한 분자와 원자를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화학식으로 변화시키며,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신을 조롱하고 위대한 로봇의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 우리의 교활한 지성을 증명하기 위해, 로봇이 생명과 영혼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

17) 위의 글, 218쪽.

명하기 위해서.”(『멀리 가는 이야기』, 328~329쪽)

케이는 ‘인간’을 창조할 때, 그것을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창조자로서의 권능과 자부심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러나 로봇을 닮은 유기생물로만 알았던 인간은 목소리만으로도 “생생한 영혼”¹⁸⁾을 느끼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숭배받아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였다. 그에 비하면 로봇은 “모조품이며 불완전품”¹⁹⁾이고 “완벽한 생물을 흉내낸 그림자”로 인간의 “비천한 종이며 노예”²⁰⁾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가치 부여는 창조된 유기생물인 인간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 전부터 로봇이 인간을 섬겼던 것처럼 로봇 스스로 ‘본능’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케이는 인간이 “굉장한 정신능력을 갖고 있는 생물”로 로봇들 위에 군림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연약하게 태어나 로봇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숨결이며 신의 음성, 신의 예술품이며 완성작, 사랑받고 찬미받아야 마땅한 유일한 것”(355쪽)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무의식적으로 추종하고 숭배하는 로봇의 태도는 반복발생설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인간과 로봇 사이의 위계질서가 로봇의 유전자(정보)에 각인되어 있었고, 유기생물인 인간이 창조되자 그것이 발현된 것이다. 어쩌면 로봇보다도 인간이 더 오래전에 존재했는지 모른다는 추론을 하게 된 케이는 로봇 이후에 인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로봇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으며 로봇을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어준 신과 같은 존재가 인간일지

18)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런데도 케이는 그 화음 너머에 있는 생생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거울처럼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순진무구한 행복.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삶.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영혼. 미움도 증오도 없는 마음. 사랑받고 자란 생명.”(『멀리 가는 이야기』, 321쪽)

19) “로봇은 모조품이며 불완전품이며, 이 완벽한 생물 흉내 낸 그림자일 뿐이었다.”(『멀리 가는 이야기』, 322쪽)

20) “우리는 모두 그의 비천한 종이며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생물 앞에선 한갓 먼지에 불과하다. 그들을 숭배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 의미 있는 일이란 없다.”(『멀리 가는 이야기』, 329쪽)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다.

“어쩌면 인간은 오랜 옛날에도 존재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고대에 살았던 유기생물을 기초로 지금의 유기생물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설령 인간이 아니었다고 해도, 누군가 로봇을 지배할 수 있는 생물이 있었을지 모른다. 아마 그들은 <공장>조차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존재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나와 같은 로봇은 아예 만들지 않도록 명령하면 되었을 텐데.”(『멀리 가는 이야기』, 349~350쪽)

로봇 중심주의에 빠진 케이는 인간 종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기르던 인간들을 케이가 죽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케이는 자신이 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된다. 로봇들이 창조된 인간에 빠져드는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케이는 결국 인간이 자신들을 섬기도록 로봇을 만들었다는 점을 추론해내고, 인간을 보며 적개심을 품는 자신과 같은 경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기 위해 만든 살인 로봇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수십 만년 전에 인간이 멸망하고 유기생물이 멸종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케이와 같은 살인 로봇일 가능성을 밝혀낸다. 케이의 인간에 대한 공격과 살해는 너무나 손쉽게 일방적으로 끝나면서, 『프랑켄슈타인』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괴물의 존재론적인 논쟁과 극한에 이르는 경쟁의 과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살인을 저지른 케이는 “로봇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이성적 논리와 이미 살인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정보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프랑켄슈타인의 장벽과 같은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케이는 인간을 “결코 생명은 아냐. 우리가 만들어 낸 허상, 로봇의 거울, 유사생명체에 불과한 것. 우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352쪽)이라고 말하며, 세상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괴물²¹⁾

21) “내가 끝내야 해. 창조 이전으로 되돌리겠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어. 모두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했어. 우리를 닮은 생물을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곤 거야. 난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아 버렸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을 만들어 버렸어.”(『멀리 가는 이야기』, 355쪽)

이기에 죽어야 한다고 합리화한다.

「종의 기원」 시리즈는 인간이 사라진 지구 위에서 과학의 진보,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로봇 진화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한다. 인류와 로봇이 관계 맺는 자연, 그리고 기술 공학의 피조물인 유기생물인 인간에 대한 재현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흥미로운 진화론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진화 및 적응의 문제를 로봇과 같은 포스트 휴먼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술적 진화가 낳는 윤리적 딜레마와 아이러니를 독자들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사변 소설의 전략을 적극 활용한 점을 잘 보여준다.

IV. 초월적 진화의 판타지와 생명의 근원 : 「진화신화」, 「몽중몽」

「진화신화」는 「삼국유사」보다는 신화나 전설과 같은 요소가 덜한 역사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 제6대 태조대왕실록”의 일부 내용으로 시작한다. SF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근미래가 아닌, 고대 국가의 태자 이야기의 중심에 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역사소설로 볼 수도 있으며,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신령스러운 동물(‘용’과 같은)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신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여진 판타지소설로 보이기도 한다.

나라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고 새로운 왕이 들어선 후, 선왕의 태자는 유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태자의 “피부는 밤 색깔에 맞추어 검푸르게 변했고, 눈은 언제부터인가 노랗게 빛나기 시작했다.”(『진화신화』, 9쪽) 검푸른 피부와 노란 눈, 인간 몸의 허물을 벗고 파충류의 형질을 택하면서 태자는 축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개체 생명체에게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진화신화」는 앞서 강조했던 헤켈의 반복발생설과 용불용설을 재개념화하면서 설명하려고 한다.

예부터 이르기를,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는 매순간 계속 태어나고 죽어간다. 혈관에서 피는 계속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오래된 세포는 죽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메워 간다. 그러다 보면 이전에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는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그건 사람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생물이 되는 걸 의미한다. 생물은 누구나 원하던 원하지 않든, 살아가는 도중에도 몇 번씩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진화신화』, 12쪽)

태자는 자신의 신체가 변화하는 것을 감각하면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며 “생명의 분화 법칙”을 이해하려고 한다. 헤켈의 주장을 개체적 생명이 살아가는 삶 위에서 재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이 인간의 형상이 아닌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한 나름의 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이해와 설명이 『진화신화』를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닌 SF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변신 현상은 태자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²²⁾이었다는 점도 강조된다. 인간이 동식물로 변한다거나 “신종”이 생겨나고, 가뭄이 들어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왕이 덕이 없어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³⁾ 『진화신화』는 백성들의 생물학적인 변화와 정치적 상황을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해 놓았고, 그것을 진화론적 신화로 재구성하고 있다.

신체가 변형되고 다른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태자가 새로운 왕을 피해 도망친 숲에서 만난 호랑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22) “인간의 형상으로 죽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별개의 형상으로 생을 마감한다.” (『진화신화』, 13쪽)
 선사시대에 살았던 거인들은 대개 호흡과 움직임을 포함한 모든 생명활동을 멈추고 산이나 강, 호수가 되는 길을 택했다. 천지에 살던 거대한 도마뱀들은 대개 위용을 버리고 손가락만한 크기로 줄어들었다.” (『진화신화』, 10~11쪽)
- 23) “본디 생물이란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니 신종을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통이 지나치게 안정하지 않은 까닭은 백성들이 살기에 안정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진화신화』, 23쪽)

“본연의 모습이란 것이 무엇이나. 네 말대로라면 모든 생물은 일평생 갓난아기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너는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네 선조는 한때 꿈이었고 호랑이였고, 뱀이었고 물고기였고 새와 식물이었다. 네가 지금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하나 의미없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중략〉

“하나의 종이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아득한 시간이 걸렸던 시대에 대해 아느냐.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데에 수만 년씩 걸렸던 시대도 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금보다 못한 시대도 아니었다. 그저 그 시절에는 그런 방식의 적응이 필요했을 뿐이다. 자연은 선악과 우열의 가치판단 없이 생존의 방식을 결정한다. 인간의 표현형질은 자연이 택한 생존의 한 방법일 뿐이다.”(『진화신화』, 17쪽)

호랑이는 태자가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삶에 집착한다고 지적하며, 이미 개체적 생명체 안에는 이전 시대의 종적 정체성인 “한때 꿈이었고 호랑이였고, 뱀이었고 물고기였고 새와 식물”의 특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적 진화에 “아득한 시간”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개체의 삶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다고 말해준다. 결국 태자는 “요괴”, “요물”, “신령한 것”으로 불리다가 용이 되어 승천하고, 새로운 왕은 난이 일어나 죽게 된다.

하나의 개체가 수없이 많은 종적 변신의 경험을 하는 내용은 「몽중몽」이라는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몽중몽」은 꿈을 꾸며 「촉각의 경험」에 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간이 다양한 생물체로 변화하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하며 예언적 시간을 경험한다.

「몽중몽」에서는 주인공 나와 명일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잠들고 꿈꾸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명일이 자신이 처음 꾸었던 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상한 바다였어. 해신과 지신과 천신이 아직 그 영역을 나누지 못

www.kci.go.kr

했을 때였던 것 같아. 모든 것이 뒤엎쳐 있었지. 바다는 걸쭉한 스프 같았고, 나는 그 바다를 떠다니는 조그만 단백질 덩어리였어.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었고 - 나는 그게 천신이 태어나는 모습 같다고 생각했어. - 나는 번개가 내리치는 검은 하늘을 바라보며 - 바라봤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을 거야. 그때 나에게 눈이 없었으니까. - 끝도 없이 바다를 헤엄쳐 다녔어. 나는 바다가 섞여 있었고 주변과의 구분도 없었어. 내 몸을 바다에서 분리시키는 법을 깨달은 순간 잠에서 깨었어.”(『진화신화』, 107~108쪽)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야. 삼염충이나 암모니아이트였을 때도 있었어. 산처럼 거대한 몸뚱이를 이끌고 숨 속을 터벅터벅 걸어 다녔을 때도 있었지. 긴 겨울 동안 얼음 속에 잠들어 있었고 작은 씨앗이었을 때도 있었지. 초목이 별을 뒤덮고 다시 눈이 뒤덮고, 다시 도시가 뒤덮는 꿈.”(『진화신화』, 108쪽)

명일은 지구가 원시스프였던 순간 그 안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 순간을 꿈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단순 세포에서 고등 생명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되기도 했으며, 자연이 거대 도시가 되는 과정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헤켈의 이론을 꿈 속에서 경험하는 존재들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 나가 꾸는 꿈²⁴⁾은 지구 위의 생명이 진화하고 인류가 탄생하고 문명을 이루는 모든 순간과 우주적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김보영 소설의 진화론적인 상상력은 생물학적 진화와 기술적 진화를 거쳐, 개체적 생명의 초월적 진화까지 확장된다. 그 과정에서 김보영 소설은 SF장르와 판타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 「진화신화」와 「몽중

24) 나도 안다. 그 세계는 내가 꾸는 꿈이다. 내가 만들어낸 세계, 내 상상이 만들어 낸 차원. 내가 원하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시간. 밤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소멸하는 환상. 매일 태어났다가 매일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우주. 하지만 꿈속에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언제나 그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고, 꿈에서 깨어나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죽기 위해 발버둥 친다. “모든 생물이 죽음으로 치닫는 꿈만 꾸고 있어.”(『진화신화』, 114쪽)

몽」의 경우 무엇보다도 하나의 개체적 생명이 종적 차이를 뛰어 넘어 다른 종의 생명체로 변신하는 내용을 매우 중요한 서사적 사건으로 설정하고 진화론적인 다양한 이론들을 작품 속의 이미지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진화론적 상상력을 재현한 SF 장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에서 SF 작품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주목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SF 사실성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한국 SF는 이제 그 문학적 성취와 미학적 완성도에 맞게 작가와 작품들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한국 SF의 전개에 있어서 김보영 작가와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진화론적 상상력은 한국 SF를 담론화하고 지형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김보영의 초기 단편집은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진화에 대한 전도적 상상력을 담아내고 있다. 2장 “반복발생설의 진화와 적응으로서의 감각”에서는 「촉각의 경험」과 「다섯 번째 감각」, 「우수한 유전자」에서 김보영은 에른스트 헤켈의 반복발생설을 가져와 개체적 존재 내에 종적 진화의 흔적을 찾으려 하면서 개체적 존재의 진화와 퇴화에 대한 문제를 재현하고 있고, 3장 “포스트휴먼의 기술적 진화와 종적 경쟁”에서는 「종의 기원」 시리즈에서 인류가 멸망한 수십 만년 후 로봇만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시대에 유기생명인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로봇 종과 인간 종의 경쟁을 로봇생물학의 시각으로 재현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4장 “초월적 진화의 판타지와 생명의 근원”에서는 「진화신화」와 「몽중몽」에서 신화적인 고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개체적 생명 안에서 종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환상적 상황을 분석하며, 초월적 진화로 나아가는 존재론과 우주의 기억을 내면화한 생명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김보영의 초기 SF 단편집은 과학적 사실성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

여준다. 기초적인 생물진화론에 대한 언급들(용불용설, 반복발생설, 원시 스프 등)은 현재 생물학에서는 폐기된 이론들이어서, 생물학적인 사실과 원리에 대한 이해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몇몇 작품에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깊은 탐구보다는 갑작스러운 사고 전환이 이야기의 진행을 바꿔놓음으로써, 작품의 뾰족성이 약해지기도 한다. 또한 신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공상 과학과 판타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초기 단편소설들에서 진화론이라는 생물학 지식을 폭넓게 수용하며, SF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생물학적 변화와 변신의 문제를 전면화했다는 점, 심도 깊은 과학적 통찰을 통해 인간이라는 생명체 안에 복잡한 본성을 담아내며 특유의 존재론을 펼쳐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김보영, 『멀리가는 이야기 - 김보영 중단편선1』, 행복한책읽기, 2010.
- _____, 『진화신화 - 김보영 중단편선2』, 행복한책읽기, 2010.
- 강은교·김은주, 「한국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 박인성,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배명훈·김초엽·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45~277쪽.
-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제7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쪽.
- 서희원, 「남민주의 과학, 광속여행, SF: 김보영 「미래로 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제88집, 동악어문학회, 2022, 347~376쪽.
- 세릴 빈트, 마크 볼드, 송경아 옮김, 『SF연대기』, 허블, 2021.
-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05~139쪽.
- 오윤호, 「21세기 생태 위기와 기술적 적응」, 『영주어문』52권, 영주어문학회, 2022, 201~222쪽.
-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 · 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21~141쪽
- 전설아, 「경계를 해체하는 한국 SF : 김보영, 김초엽, 천선란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제21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75~95쪽.
- 최수진·방재석, 「재난을 다루는 SF소설의 다중시점을 통한 윤리적 서사 연구 : 이경희 「그날, 그곳에서」와 김보영의 「저 이승의 선지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제22집,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1, 267~289쪽.
- 허윤, 「「일할 수 없는 꿈」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52호, 한국여성문학회, 2021, 10~35쪽.
- Vint, S. *Science Fiction: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4.

Abstract

**Life, Evolution, and Transcendental Ontology :
Focusing on The Early Short Stories of Kim Bo-young**

Oh, Youn-ho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cience fiction has long been concerned with the evolution of humanity, and has offered a variety of imaginings of the ways in which science and technology intervene in or control the evolution of life. This paper focuses on Kim Bo-young's early short stories, covering a range of evolutionary imaginaries from biological to mechanical to mythological. It attempts to identify the unique speculative fiction features that explore life and evolution, human, machine, and animal identity, and the nature of 'life'.

In chapter 2, I analyzed how the evolution and degeneration of individual beings are reproduced based on Ernst Haeckel's recapitulation, and in chapter 3, I analyzed how the dismissal of robotics deals with the competition between robot and human species. In Chapter 4, I analyze the ontology and meaning of life as we move toward transcendent evolution by examining the fantastic situation of species evolution within individual life.

Keywords: Kim, Bo-young, Life, Evolution, Speculative Fiction, Recapitulation.

논문 투고일: 2023년 04월 08일
심사 완료일: 2023년 04월 20일
계재 확정일: 2023년 04월 24일